

## 우리 동네 지킴이

오늘도 나는 동사무소에 도착한 후 노란색의 덧옷을 입는다. 덧옷의 등에 쓰인 '행복한 서구'와 '우리 동네 지킴이'라는 글자가 창피하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 같아 등이 근질거리고 따갑다. 그래도 나는 좀 덤고 어렵더라도 껍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내가 이 옷을 입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연히 기회를 얻었기에 소중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거리 청소를 시키고 일당을 준다니 같이 신청해 보자고.”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신 씨가 내 손을 잡아끌었다. 사실 나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껴 쓰면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기에 더 이상 나라에서 주는 혜택에 기대기가 썩스럽다. 그러나 신 씨의 생각은 내 생각과 많이 달랐다. 그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만큼 누리면서도 언제나 정부에 불만이 많다.

“하여간 정부 놈들이란, 없는 사람 도와주려면 돈 좀 듬뿍듬뿍 주든지....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주면서 생색을 내는 건 최고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 씨처럼 타올에 젖어 사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일을 해 생활을 꾸려갈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정부에 얹혀살려는 습성에 젖어 있다. 신 씨의 손에 끌려 동사무소에 도착한 나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하루 세 시간씩 동네와 근린공원인 남선공원을 청소하는 일인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제비뽑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려운 이웃에게 최저임금의 시급을 주고 동네도 깨끗하게 만들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시책이었다. 이런 정부 시책에 신 씨도 나도 뽑혀 일을 하게 되었으니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다.

“9시부터 12시까지 세 시간만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동사무소 앞에 모여 출석 체크를 한 다음 뽀뽀이 흠어져 동네 청소를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덧입은 윗옷에 쓰인 ‘우리 동네 지킴이’ 혹은 ‘남선공원 지킴이’라는 글씨가 마음에 걸려 얼굴도 들지 못했다. 그러나 신 씨를 비롯한 남들은 이깟 것이 무슨 창피냐는 듯 휴지를 주우면서도 연신 입은 바쁘게 놀렸다. 때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수다를 떨며 깔깔거리고 웃기도 했다.

“자식들, 담배꽁초를 어지간히도 버렸네.”

어떤 사람들은 집게로 휴지와 담배꽁초를 주워 비닐봉지에 담으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그 말에 나는 반박의 한마디를 하려다가 이내 목구멍으로 삼키고 말았다.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물론 거리에 휴지를 버린다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그런 무질서가 있기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던가? 만약 거리가 깨끗했다면 누가 우리를 고용해 일을 시키겠는가? 그러니 불만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이, 이 씨. 좀 쉬면서 천천히 합시다.”

일을 시작한 지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먹자골목의 술집 앞 의자에 앉아 쉬며 한편의 수다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왠지 눈에 거슬렸다. '서구청'이라고 인쇄된 노란 옷을 입은 네댓 명이 청소를 하다 말고 의자에 앉아 잔소리만 하고 있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주민들의 눈이 무서웠다. 그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니 나는 시민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한마디로 부정이고 부패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료들처럼 자리에 앉지 않고 열심히 주변을 청소했다. 다른 사람들은 집계를 이용해 쓰레기를 주웠지만 나는 장갑을 끼고 손으로 쓰레기를 주웠다. 집계를 이용하면 담배꽂이 같은 작은 쓰레기는 잘 집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 나를 보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다.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내가 못마땅한 듯 수군거렸다. 그래도 정부에서 주는 돈을 타 먹으려면 돈만큼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 한 시간에 돈은 8,590원씩 타 먹으면서 일은 2,000원어치도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부정이고 부패인 것이다. 받는 돈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책임자가 아닌데 그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지나니 여름이 다가왔다. 이젠 제법 더위가 몰려왔다. 아침 9시밖에 안 되었건만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먹자골목과 남선공원 입구에 청소가 미흡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신경 좀 써서 청소해 주세요.”

조회 시 동사무소 담당자의 지적을 들은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이 청소해야 할 동료들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가 공원 입구의 그늘진 벤치에 앉아 노닥거리고 있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불과 몇 분 전에 청소 좀 깨끗이 해달라고 담당자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그대로 흘려보낸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나는 묵묵히 혼자서 청소를 했다. 혼자서 청소를 끝내고 나도 잠깐 숨을 고르려고 그늘에 들었다.

“이 씨, 그렇게 열심히 청소한다고 누가 돈을 더 얹어 주기라도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한마디씩 말 화살을 날렸다. 그래도 나는 말 상대하기 싫어 대꾸하지 않았다.

“이 사람아, 비력질 와서 땀 흘리면 삼대가 빌어먹는다잖아.”

누군가의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왜 비력질이야? 엄연히 돈 받고 일하는 건데.... 돈 받고 일하면 열심히 그 값을 해야지.”  
내가 버럭 화를 냈다.

“그깟 한 시간에 최저임금인 8,000원을 주는 것도 돈이야?”

시원한 그늘에 앉아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언성을 높였다. 나는 그런 행동도 싫어 그 자리를 피해 골목을 청소했다. 그들과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하다가는 지나가는 주민에게 나쁜 인상을 줄 것 같아서였다. 나는 골목의 담배꽂초를 줍고 있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지금 우리 팀이 하는 행동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고 우리는 하루 세 시간을 일한다. 한 달을 계산하면 50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우리 팀 사람들은 그까짓 것이라 하며 일을 하는 데 소극적이다.

우리는 지나온 수십 년 세월을 청렴과 결백을 입에 달고 살아왔다. 그 결과 이젠 살 만 하게 되었고 복지 국가의 목전에 다다랐다.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직 자는 물론 회사원에서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여야 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부정과 부패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공무원들이 나랏돈을 떼먹지 않고 일하는 것만이 청렴과 결백의 전부가 아니다. 민원인에게 트집을 잡아 항응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만이 청렴하고 결백한 것만은 아니다. 그들처럼 돈을 받고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패이고 부정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높은 자리에 앉아 국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남의 돈으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부정과 부패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정과 부패는 높은 자리에서, 큰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적은 돈에 연루되어도, 아주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부정과 부패인 것이다. 지금 그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정과 부패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들이 일을 쉬엄쉬엄하는 것을 가지고 뭘 그리 야박하게 따지느냐?’ 누구는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을 가둔 넓은 저수지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청렴이요 결백인 것이다.

“이윤재 어르신 한 분만 제외하고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의 담당자는 나만 빼고 전원을 교체했다. 들리는 말로는 담당자가 우리들이 일하는 모습을 훑쳐봤다고도 하고, 또는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며 혜택을 주기 위해 교체했다고도 했다. 그런가 하면 담당자가 자기 사람을 심어 놓고 여럿을 감시했다고도 했다. 그런 소문이 돌자 어떤 사람은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나는 아니

다. 나는 그냥 성실하게 일만 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동료들을 향해 나는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지도 않았다. 지나간 일이지만 잘 생각해 보니 주민들의 눈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일을 열심히 하자고 했잖아요.”

동료 중 누군가가 후회의 한마디를 했으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다.

이후 나는 새로 뽑힌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게 되었으나 그들 역시 일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는 께부리지 않고 열심히 청소하며 이런 것이 청렴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